

## 협회, 팔공산지부 탐방



국립공원협회는 지난 4월19일 팔공산 도립공원지부(지부장 김정호) 초청으로 이경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전문위원 및 본부·지부회원 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연사랑 캠페인 탐방을 가졌다.

서울에서 열차와 버스편으로 팔공산에 도착한 회원들은 간략한 집회행사를 가진데 이어 쓰레기 줍기, 공원사랑 홍보활동을 벌이며 산행에 나섰다.

김정호 팔공산 지부장은 이날 『팔공산은 2백50만 대구시민의 수도장이요 교육장이며 자연, 역사, 문화의 거대한 집합체』라고 말하고 『이번 탐방이 유구한 문화발전을 지닌 팔공산의 자연과 역사를 탐구하는 길잡이가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귀경길 열차에서 간담회 등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 환경부인사

#### 자연공원과정에 박희정씨

- 국장급
  - 공보관 김영화
  - 환경공무원교육원장 이선룡
  -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신현국

#### ■ 과장급

##### <과장>

- 자연공원 박희정
- 대기정책 고윤화
- 수질정책 문정호
- 폐기물정책 윤성규
- 폐기물시설 최용철
- 유해물질 한기선

##### <서기관>

- 자연정책과 이상팔
- 영산강환경관리청관리과장 김수년



< 박희정과장 >

<5.14>

## 국립공원사랑자연보호캠페인

국립공원협회는 지난 5월10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본회 이경식 회장과 임원, 전문위원, 회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지부탐방행사와 병행 실시했던 <국립공원사랑운동 및 자연정화활동>의 일환으로 <국립공원사랑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였다.

회원들은 이날 서울 정릉 본회 사무실 앞 주차광장에 집결하여 내원사, 칼바위능선, 대동문, 동장대, 보국문, 대성문, 일선사, 형제봉을 거쳐 산행하면서 자연보호캠페인, 자연정화활동 등을 벌였다. 산행 후에는 처음 집결

지인 주차광장에 모여 강평회를 가진데 이어 서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기도 했다.



## '98 금수강산

### 국립공원사진대전

국회 국립공원발전연구회(회장 권익현 의원)는 지난 4월20일부터 22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중앙홀에서 '98 금수강산 국립공원사진대전을 개최했다.

국립공원 및 자연생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올바른 탐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종권씨(본회 대의원)의 「덕유산 철쭉」 등 120여점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치악산지부

치악산지부(지부장 김수환)는 지난 3월15일 계방산(강원 평창군 소재)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98년 상반기 자연보호활동을 벌였다.

회원들은 야생동물 불법포획그물망 제거, 등산로주변 쓰레기 수거,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계몽, 산행시 1회용 도시락 안쓰기 홍보 등에 나섰다.



## 천마산지부

천마산지부(지부장 전종수) 고문인 이승각씨는 지난 5월5일 서울시 성동구 금호4가 옥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여명을 초청, 제10회 금호경로잔치를 벌였다. 코미디언 남춘 최용순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세기 국회의원, 라병선 국민회의지구당위원장, 전종수 지부장, 무형문화재 이서정씨, 탤런트 김상순, 오유경씨, 풍물패 등이 참석하여 여흥을 가졌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

## 사법경찰권부여

환경부는 지난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4월 중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아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국립공원 훼손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 주차광장에서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행사에 들어갔다.



## 본회신규증신회원



**김 광 호**  
대한문화사 대표  
도봉구 방학동 599-2



**김 부 회**  
상업  
강남구 신사동 526-12



**한 상 일**  
학생  
춘천시 서면 금산3리 932

##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사 발령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대우)은 5월22일 부이사장에 성낙오, 기획이사 정권섭, 운영이사에 함상근씨, 감사에는 김규응씨를 임명했다. 한편 소장급 인사는 다음과 같다.

- ▲ 감사실장 조길제 ▲ 설악산 관리사무소장 이고봉
- ▲ 가야산 관리사무소장 이만우 ▲ 오대산( " ) 이형우
- ▲ 치악산( " ) 신흥진 ▲ 월악산( " ) 김영기
- ▲ 지리산북부( " ) 송계용 ▲ 지리산 남부( " ) 강동원
- ▲ 지리산동부( " ) 김관수 ▲ 계룡산( " ) 김춘배
- ▲ 내장산북부( " ) 최봉석 ▲ 덕유산( " ) 이한수
- ▲ 주왕산( " ) 최복규 ▲ 태안해안( " ) 백승문
- ▲ 다도해해상( " ) 김공수 ▲ 소백산남부( " ) 이해복
- ▲ 월출산( " ) 김웅식 ▲ 북한산동부·서부( " ) 곽임 권병화
- ▲ 총무과장 고광문 ▲ 운영과장 고광선
- ▲ 환경보전과장 서팔석<98.6.5> ▲

## 새책안내

들꽃과 시인

김재황 지음

이 세상에 들꽃이 피듯, 저 하늘에는 별이 돋는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는詩가 안긴다. 영혼을 불살라서 탄생되는 시는, 읽는 이의 가슴으로 들어가서 또 한 송이의 꽃을 피운다. 그 꽃은 저마다 독특한 얼굴과 표정을 물론이요, 색깔과 향기를 지닌다.

이 책에는 모두 25명의 시인과 25종의 들꽃이 소개되고 있다. 즉, 어느 시인이 어느 들꽃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지, 한 시인과 한 들꽃을 연결지어 놓았다.

시인의 출생에서부터 가족과 성장과정 그리고 작품에 이르기까지, 어느 들꽃과 어디가 어떻게 같은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자는 사랑의 정표로 들꽃 하나씩을 바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과, 우리가 사랑하는 들꽃을, 닮은 것끼리 짝을 맞추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인은 이 세상을 떠나도, 그의 작품은 영원히 들꽃처럼 아름답게 남아 있을 테니까. 또 그 들꽃을 가슴에 안을 때마다 향기는 전해질 테니까.

이 책의 저자는, 시인으로서 고려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했다. 월간문학 신인 작품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시집 「거울 속의 천사」 「바보여귀」 「내 숨결 네 가슴 스밀 때」 「그대가 사는 숲」 「못생긴 모과」 등이 있으며, 산문집 「비 속에서 꽃피는 꽃치자나무」 「시와 만나는 77종 나무 이야기」 「시와 만나는 100종 들꽃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민통선 탐방기의 일부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이고,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 한국기독교문인협회 감사를 역임했고, 한국녹색시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